

# 해남군, 미국 최대 한인마트 H마트와 '수출 확대' 업무협약

### 해남농수산물 미주지역 진출...수출 선두주자로 견인

### 뉴욕문화원 주최로 김치·김밥 등 K-푸드 홍보 행사 진행

해남 농수산식품이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의 선두주자로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선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일현 H마트 권일현 회장은 현지시각 12일 해남산 농수산물 수출확대와 상생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확대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H마트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박병찬 해남군수협 조합장, H마트 임원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미주 수출에 획기적 계기가 될 이번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의 농수산물은 국내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출은 아직 초반 단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며 "미주지역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를 통해 해남 농수산식품이 세

계인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H마트는 권일현 회장이 1982년 설립한 미국내 최대 한인마트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 127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연매출은 20억 달러로 한화 약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캐나다로 수출된 해남배추의 현지 판매처로, 현재까지 400여톤의 배추가 H마트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수출 성과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미주지역 최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H마트를 통해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남군과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산물 수출제품을 발굴해 H마트에 입점하고, 온·오프라인 H마트를 활용해 농수산식품

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H마트를 통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입점제품 다양화를 위한 식품수출기지 구축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일현 회장은 "한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 전남 해남의 농식품들을 H마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마트의 대부분 고객들도 아시아권을 넘어선 만큼 전남 농수산식품이 전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뉴욕문화원 주최로 남도김치 담그기 시연과 김밥만들기 등 남도 음식 홍보행사가 열렸다.

한류 열풍에 따른 K-푸드에 관심을 반영하듯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요리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해남 화원농협의 절임배추와 영암 김치양념을 활용해 김치 담그기 시연이 열렸다.

또한 한국김밥 쌀, 갖은 재료를 이용한 김밥



좌 권일현 H마트 회장, 우 명현관 해남군수  
만들기, 김치양념을 활용한 즉식 샐러드 만들기, 남도 발효음식 한상 시식회 등도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K-푸드가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 한국의 김치와 함께 해남배추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 장흥 굴구이, 겨울 몸보신에 '최고'

### 용산면 남포마을·관산읍 죽청마을 가족 단위 방문 늘어



장흥 굴구이가 전남도가 '겨울 몸보신 식도락 여행'이란 주제로 추천한 제철 음식에 선정됐다.  
마을 앞에서 건져낸 자연산 굴을 직접 구워 먹으니 싱싱함은 두말할 것 없다. 남포마을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굴을 직화로 구워내 구수함이 두 배다. 관산읍 죽청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굴구이집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죽청마을에서는 양식 굴을 잘 달구진 철판위에 구워 먹는다.  
자연산 굴에 비해 알이 굵고 가스불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식객들이 많이 찾는다.  
친환경 장흥무산김과 매생이도 장흥군 겨울철에 맞출 수 있는 제철음식이다.  
착한김으로 더 유명한 무산김은 지난해 'ASC-MSC 국제 친환경인증'을 취득하면서 몸값을 높였다.  
국민 안전먹거리 무산김은 일반제품보다 밀도 있게 자라 김 고유의 향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생이는 특량만의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으로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은 겨울철 최고의 별미다.  
매생이국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나 색다른 맛을 위해 굴이나 떡국 떡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한다.

실제로 굴구이는 겨울철 장흥군의 최고 별미로 손꼽힌다.

장흥 사람은 물론, 외지에서든 굴 구이의 맛에 반해 바닷가 구석진 마을까지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벌겋게 피워 오른 장작불 위에 바다에서 막 건진 굴을 올려놓으면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바다 냄새가 진동한다.

준비된 소도(小刀)로 하얀 속살을 발라 입안에 넣으면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세상 부러울 것 없다.

장흥에서도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죽청마을이 굴 구이로 유명하다.

장흥=김도영 기자

## 강진에서 돈 쓴 김에 '내돈내산' 리뷰 어때?

### SNS 작성하면 강진사랑상품권 월 최대 1만원



강진군이 관내 소상공인 업체 이용 후 SNS에 리뷰를 작성하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트-내돈내산 SNS'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078명이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2,006건의 SNS 리뷰를 작성했다. 군은 강진사랑상품권페이백으로 1,026만원을 지급했다. 강진군 내 소상공인들의 외식업, 미용업, 가공품 등 다양한 업체를 이용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진군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1만원 이상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과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해 온라인 플랫폼 및 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우선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면서 사진을 찍은 뒤 1만 원 이상 영수증 수령, 영수증 및 구매 물품 개인 SNS 전체 공개 게시(필수 해시태그 게시 : #강진 #강진내돈내산 #강진소상공인), 이벤트 신청(구글 폼 <https://url.kr/z53nqu>)순으로 참여하면 된다. 매일 최대 2회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하면 된다.

군은 영수증 중복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참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페이백으로 5,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책(chak) 모바일로 발송하고, 매월 베스트리뷰 5명을 선정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 바깥 강진 관광의 해를 맞아 강진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에 이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우수상' 수상

###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 등 높은 점수...상사업비 3,500만원 확보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

와 품목 다양화 등 친환경농업 기반확충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정책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군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정책추진 ▲친환경농업 신규사업 발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친환경 경작 필지 벗길환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3,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